

전남일보와 광주은행이 공동주최한 제29회 녹색환경대상 수상자로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생활환경개선에 앞장선 기관 단체와 개인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캠페인 운영 등 주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끈 광주 남구청 △청향선을 활용해 해양재해쓰레기 수거에 매진한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2020년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에 주력한 신안군 △교과 연계 집중 환경수

업을 펼친 동아여자중학교 △환경분야별 세분화 교육을 시행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남동우 이사 등이다.

환경부장관상인 종합대상과 부문별 대상, 서한태환경상을 수상한 단체와 개인의 공적을 소개한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진행된다.

# 남구 주민 '원팀' 만들어 탄소중립도시 선도

##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가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해 주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

남구는 2045년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광주 남구 산·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2021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022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최초로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를 열었다.

남구는 지난 9월 '남구야 지구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했다. 탄소제로, 에너지제로, 쓰레기 제로를 뜻하는 '3 ZERO'를 주제로 38개 체험부스를 운영해 2일간 45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체험하도록 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했다.

에너지·쓰레기·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축제 기본



광주 남구가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 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원칙에 따라 체험부스 안내 배너는 20년간 사용한 후 폐기 예정이었던 태양광 폐패널 60개를 활용했다. 체험부스 현수막은 폐박스로 제작하고 축제 홍보 현수막은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스탬프 투어 리플릿은 공기름 잉크를 활용하고 전단지 재생용

지로 제작했다. 체험장 일원에는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고 참여자들에게 2045년까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다짐하는 2045명의 서명을 달성했다.

체험 축제를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1.12톤이며

2045명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약속을 통해 향후 2024년까지 감축될 온실가스 양은 총 2020톤에 달할 것으로 남구는 예상하고 있다.

남구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 축제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생활실천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파트 개인세대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해 60%에 달하는 5만7731세대가 가입했다.

가입을 통해 지난해 기준 남구 전체 전기사용량의 2%를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가입률, 전기사용량 절감 등에 만족하지 않고 남구는 민·관 합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남구는 에너지전환주민 활동가 44명, 절전지킴이 20명, 남구그린리더 주민협의회 60명 등 시민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난방 영업금지' 홍보활동을 관내 점포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 스스로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터득할 수 있게 동참률을 높여나가는 구성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선용 기자

## 해양 쓰레기 수거... 깨끗한 목포항만 온힘

### 생활속 환경실천부문 대상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는 해양 재해 쓰레기 부유물 수거, 해양시설 발생 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는 도내 유일한 해양환경보전 공공기관으로 청향선 2척과 전문인력 18명을 활용해 목포항 일원 해양쓰레기 수거로 청결한 해양 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목포지역은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장마철 강수량(783mm)을 기록했다. 영산강에서부터 떠나려 온 재해 쓰레기를 청향선 등을 이용해 수거함으로써 원활한 목포항 선박 운항에 보탬이 됐다.

재해쓰레기 수거에 이어 해양오염물질 수거·처리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는 쓰레기 부유물 수거 등을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제공

도 하고 있다

임청빈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과장은 "여름 장마철 재해쓰레기가 확산됨에 따라 여객선사와 어민 등으로부터 목포항 터미널, 동명항·남항 부두까지 떠밀려오는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는 모든 세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신안 청정 해양 생태계·갯벌 보호 앞장

###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 김강심)는 민·관이 함께 꾸준한 바다 쓰레기수거활동을 펼치며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신안 청정 해양생태계와 갯벌 보호를 위해 매년 2회 쓰레기 수거활동을 시행했다.

올해는 전남일보, 압해읍 주민, 신안군 세계유산과 임직원, 임자면 주민 등 민·관이 합심해 임자면 어머리 해변과 압해읍 송공항 일원에 산적해 있는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20kg 마대자루 200개에 달하는 폐어구 등이 수거돼 읍·면사무소에 수거처리 협조요청을 했다.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김강심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는 "신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아 읍·면별 경로당을 방문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 행동과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법 등을 밀착 지도했다"고 말했다.

## 교과 연계 탄소중립 실천행동 지도 매진

### 환경교육부문 대상 광주 동아여자중학교

동아여자중학교(교장 오광섭)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미래세대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행동 의식 등을 함양시키는데 매진했다.

동아여자중학교는 2021년 광주시교육청 에코교실 녹색커튼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환경 자율 동아리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을 운영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교내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비상행동 실천단에서는 교내 동아리 발표회에서 친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해 학습자들에게 기후위기 중요성과 대응 실천법을 알렸다. 교과와 연계한 환경수업도 이뤄졌다.



동아여자중학교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아여자중학교 제공

오광섭 동아여자중학교 교장은 "시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지원하는 학교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일상생활 행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환경 훼손 방지 미래세대 환경교육 주력

### 서한태 환경상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남동우 이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남동우 이사는 자연환경 변화·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1977년 전남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남 이사는 광주 경신여고에서 근무하며 생명과학, 환경 과목 등을 교육했다. 퇴직후 박사학위를 취득해 세한대, 동신대 등에서 생물학, 생명과학 등을 연구하며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되돌려 줘야겠다 결심해 활발한 환경교육 강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환경강사로 총 70회·146시간을 활동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초·중학교 대상 식물생태계 탐험 강의 18회·37시간,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초등학생



남동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가 미래세대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제공

대상 해양생태계·해양환경 강의 10회·22시간, 기상청 성인 대상 기후환경변화 대비 건강관리 강의 27회·59시간 등이다.

2020년 7월 환경교육사 2급을 취득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직을 맡으며 지자체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리, 무등길 제12길·만연길 정비 등 무등산에 대한 관리·보호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